

다산포럼

공자의 꿈, 청년의 꿈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공자가 만년에 “심하도다, 나의 노쇠한 이여! 오래되었도다, 내가 다시 주공(周公)을 꿈속에서 뵈지 못한 지도.”(甚矣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라 탄식한 것이 ‘논어’ 술어(述而) 편에 보인다. 주공은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이상 정치를 실현한 인물로 공자가 가장 존경한 성인 중의 한 분이다. 말하자면 주공은 공자의 ‘롤 모델’이었던 셈이다.

공자는 늘 주공과 같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 주공이라는 이상이 있었기에 공자는 그렇게 힘든 나날을 견디며 살아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도 인간인지라 늙어서는 꿈에도 주공을 뵈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이상이 시들어 버린

것이다. 청년(青年)을 청춘(靑春)이라 부른다. ‘청춘’은 ‘푸른 봄’이 아니라 ‘봄’ 그 자체이다. 음양오행설에서 ‘춘(春)은 동방(東方)에 해당되고 동방은 ‘청색(靑色)에 배속되기 때문에 ‘춘(春)을 청춘(靑春)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화를 ‘한매(寒梅)라 하고 국화를 ‘상국(霜菊)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화는 추운 겨울에 피기 때문에 ‘한매’요, 국화는 서리 내린 다음에 피기 때문에 ‘상국’이라 부르는 것이다.

일찍 시든 청년의 꿈

그러므로 청년은 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하는 나이의 사람이다. 봄이란 어떤 계절인가?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청년은 이 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다. 청년에게는 온갖 가능성이 열려 있어 온갖 꿈을 꾸며 마음껏 이상의 날개를 펼친다.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예쁜 여배우와 데이트 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꿈과 이상을 가진다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고 청년을 청년

이게끔 해주는 삶의 추동력(推動力)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는 옛말이 되었고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란 말이 등장하더니 급기야는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는 ‘질포세대’가 청년을 지칭하는 신조어(新造語)가 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땅의 청년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나뉜다는 자체가 심각한 청년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는 늙어서야 주공의 꿈을 꾸지 않았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너무 일찍이 꿈을 접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으레 아프기 마련이다’, ‘아픈 것은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다’라는 담담한 말로 꿈을 접는 청년들을 달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선 입시 경쟁,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졸업하면 학자금 빚 독촉에 시달립니다. 청년 10명 중 서너 명은 실업자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취업, 꿈, 미래, 연애, 결혼, 출산 등 포기한 것이 너무 많은 청년은 세상이 지옥 같다며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 누가 우리 청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까? …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이 꿈을 꺾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고 말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렇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꿈이 없는 청년을 청춘이라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잃어버린 꿈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는지…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을 장백하게 시들지 않도록 할 특단의 조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김지수  
조선대 컴퓨터통계학과 2년 (교육방송국장)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지수야 너는 학교에 사는 것 같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말이다. 내 머릿속의 ‘대학생’이란 그동안의 고된 스파르타식 교육에서 벗어나 제일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매진해볼 수 있는 신분이다. 하지만,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고 1학년 때 남들 노는 만큼 놀고, 마음 편하게 놀고, 먹고 놀아 공부에는 점차 욕심이 없어졌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곤두박질 처버린 성적표를 보고 정신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자기개발에는 무관심하지만 남들 챙기기엔 바쁘다. 나대는 성격은 아니지만 혼자 속으로 ‘내가 조정해보고 싶은

대학 학생회 간부들에게 전네는 사연

데?”, ‘내가 이 일에 대표로 나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기회가 오면 사양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그런지 집단을 대표할 때는 책임감과 정의감만큼은 스파이더맨이 된다. 내가 좀 회생해도 믿고 따라주는 구성원들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서다. 그래서일까? 2학년이 되면서 맡은 일이 점점 많아져 버렸다. 과 대표와 교내 방송국장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평범한 일반 대학생 친구들보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인간관계,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책임감, 대표를 하는 입장일수록 내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려고 노력하는 능력, 더 많이 들어주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었다. 신문방송사 과장이나 학생회 회장은 맡음이 떠오른다. “이게 다 교육이고, 사회 준비 과정이 아니냐? 서류 다시 해와.” 남들을 대표하는 일을 하면서는 무조건 내 이익만 챙길 순 없다. 대학교에서는 화합이나 학생회 활동을 하면 차 한 대 뺏는다는 말이 돈다. 물론 학생회비를 걷어서 배분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자신의 이익

익추구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알고 지내는 학생회 선배들, 학교 간부들이 그러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많은 학생들에게 더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학생회비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회 간부들이다. 간부 누구라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더 책임감 있게 학우들에게 배풀어 주시길. 그 결과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고생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제15회 장미축제를 열었다. 1만8000명 학우들의 수에 맞춰 1만8000 송이의 예쁜 장미들이 축제기간동안 40만 명의 인파에게 선보였다. 장미축제 두 달 전, 학교 홍보팀에서 장미축제 때 아와 오픈 스튜디오를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매년 하던 행사였지만 당연히 한다고 했겠지만 처음이고, 인순이에게 자료 또한 없었다. 오픈 스튜디오 회의를 하면서 국원들이 왜 일을 크게 만든다고 많이 물었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할 필요가 없었다. 실무국장이 되어서 교육방송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다. 매일 회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

고 실속 있는 행사를 만들까 고민했다. 3일간 행사를 하면서 의외로 대성공이라고 느꼈다. 장휘국 교육감님, 윤장현 시장님, 강동완 총장님까지 오픈 스튜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시고 같이 DJ도 하시는 모습에 내가 일을 크게 벌인 게 맞구나 생각했지만, 모든 국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은 다만 해보지 않아서 느낀 것일 뿐이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실무국장의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데서나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예 학교에 사는 것처럼 매일같이 일을 하고 힘들어도,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고 내려오라는 것. 그 간부들을 열심히 따라주고 있는 많은 학우들에게 따라줘서 고맙다고, 따라주는 만큼 배플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라는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社說

돈벌이에만 급급한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오피스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체육시설 부지를 얹었고 문화·복지 부지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택용지를 늘리기로 했다. 국제학술 교류 거점이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상반되게 주민의 복지 공간이랄 수 있는 체육·복지 공간을 포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제출한 남악신도시 오피스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용지인 체육시설 22만9239㎡(7만 평)와 근린광장 1661㎡를 없앴다. 또 문화시설(1만9147㎡)·완충녹지 및 경관녹지(5661㎡)·노인휴식시설(2333㎡) 등의 부지 일부를 축소했다. 이렇게 없애거나 줄인 공공용지는 단독주택용지(18만3440㎡)·아파트용지(5만9780㎡) 등으로 탈바꿈해 주택건설용지는 애초보다 40%가량 많은 81만9305㎡로 늘어났다.

이중 체육시설 용지는 7개 단지로 나누어 타운하우스 5개 블록과 단독주택 1개 블록 등으로 조성된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1837가구→907가구)과 공동주택(6729→7716가구)이 모두 1711가구나 늘어난다. 개발공사는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면서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국체전 유치 등을 구상해 체육시설 부지를 지정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요인이 발생한 만큼 신도시 개발시 곳곳에 축구장·농구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녹지와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복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현대 도시계획 흐름에 비춰 보면, 전남개발공사의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오피스구를 생태적 주거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줄여든 복지 공간을 최대한 회복하고, 주택용지에 적합한 체육·문화 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발포 명령 거부했던 안병하를 기억하나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는 시위에 나선 시민군만 있었던 게 아니다. 시위를 막아야 했던 경찰도 있었으며 당시 도경국장이었던 안병하 경무관도 대표적인 5·18 피해자다. 안 경무관은 1979년 호남에 부임했고 1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공수부대의 만행과 더군다나 시위도 격렬해지자 쿠데타 신군부 세력은 경찰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며 군부대 투입을 요청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안병하 경찰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 폭력 진압과 총기 발포를 요구하는 것도 반대했다. 4·19혁명에서 경찰이 학살을 저지해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이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대가는 혹독했다. 환경이 끝난 후 '직무유기 및 지휘 포기 혐의'로 체포돼 보안사에 끌려간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자신사퇴라는 형식으로 도경국장에서 쫓겨난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1988년 사망하고 만다. 안 경무관은 유언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으며 언젠가는 역사가 알아줄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오늘 이처럼 안 경무관의 삶을 돌아본 것이다. 공수부대의 만행과 더군다나 시위도 격렬해지자 쿠데타 신군부 세력은 경찰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며 군부대 투입을 요청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안병하 경찰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 폭력 진압과 총기 발포를 요구하는 것도 반대했다. 4·19혁명에서 경찰이 학살을 저지해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이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대가는 혹독했다. 환경이 끝난 후 '직무유기 및 지휘 포기 혐의'로 체포돼 보안사에 끌려간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無 等 鼓

한국 최초의 여성 장관은 임영신(1919~1977) 씨다. 임 씨는 전북 금산(현재는 충남)에서 태어나 전주 기전여자 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미국 유학을 갔다. 이에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이 우리 동포를 대량 학살한 현장 사진과 사망자 명단을 이승만 박사에게 전했다.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에 적극 협력하게 됐다. 해방 후 1948년 제헌국회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됐으며, 1948년 8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첫 여성 상공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어 김필란 공보처 장관이 1950년 8월 임명됐다. 임영신·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1기 내각에 3명씩 여성 장관이 임명됐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1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1기 내각도 여성 장관은 2명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다. 음주 운전 등 논란으로 조대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여성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정

현배 여성가족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여기에 김영주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공식 임명되면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장관·장관급은 6명이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 장관 30% 이상’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 인사가 더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6명 중 청와대 계산대로라면 18부·5차·17청 장관급 19명의 31.6%다. 김영주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역대 여성 장관은 49명이 된다. 새 정부 장관급 고위 공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여성을 넘어 온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 조선 시대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를 가더라도 일부 사회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여성 장관 비율의 증가 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여성이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여성 장관 30%

기 고



이명진  
국립남도국악원 학예연구사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은 해마다 ‘굿음악 축제’를 열고 있다. 벌써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행사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매년 굿음악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굿음악 축제’는 여타 축제와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굿음악 축제’는 대표적인 전통 민속의 한 분야인 ‘굿’을 테마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굿’을 테마로 공연·학술회의·전시·체험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행사는 남도국악원의 ‘굿음악 축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굿음악 축제’는 아직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굿음악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않았다. 생각건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서남해의 끝이라는 진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1984년 진도대교의 준공으로 이제는 섬이 아닌 섬이 되었고 도로의 정비로 광주에서 2시간이면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육지 사람들에게 진도는 여전히 먼 곳이다. 다른 중요 요인은 바로 ‘굿’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흔히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불교 등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르게, ‘굿’ 혹은 ‘무속(巫俗)’은 원시종교, 미신 등으로 치부되며 사람들에게 거부시되는 경향이 짙다. 더하여 굿을 연행하는 예인들에 대한 인식도 편파되었다. 남도의 씨갯굿을 담당하던 ‘달굴(남도지역에서 무당을 이르는 말)’은 주위사람들에게 하대당하고, 어린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일췌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처와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정든 고향을 등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굿 혹은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현대(現代)라는 시대, 그리고 도시인·문화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연애·결혼 상담, 운세(사주팔자) 보기, 각종 고사 등을 행하기 위해 심

심치 않게 무당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 약 30~40년 전의 과거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 때만해도 시골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굿’이었다. 어른들은 무당이 주관하는 굿은 물론, 마을회관이나 집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잔치, 마을 농악, 마을 제사, 나아가 장터에서 벌어졌던 약장사, 포장극장, 소리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태의 불거리에 대해서 모두 ‘굿’이라고 불렀다. 결과적으로 ‘굿한다’, ‘굿보러 간다’라는 말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기실 굿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무당이 주재하는 ‘굿’은 우리나라 팔도의 전범위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 중 지역의 향토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술성까지 겸한 굿은 국가 및 지방의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씨갯굿’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굿’은 오랜 동안 지켜져 내려온 소중한 전통문화이다. 국악의 한 장르이며, 굿 예인 역시 전문 국악인에 속한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내재된 무당, 무속에 대한

전통사회의 인식이나 굿을 종교로 바라보는 시각 등은 굿의 대중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있어 ‘굿’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먼 과거의 낯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굿’이란 모두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이며 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매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리는 ‘굿음악 축제’는 서남부권의 굿음악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남도를 대표하는 씨갯굿(해남씨갯굿)을 비롯해 태안설위설경, 동해안오구경, 서울전신굿 등 각 지역 굿음악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굿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판을 벌였다. 당신은 일상에서의 탈출과 힐링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한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진도에서 전통 굿의 매력에 빠져볼 것을 권한다. 무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얻고, 명과 복도 시원스럽게 받아갈 기회가 될 것이다. 6월말 개최된 올해 행사에 이어 2018년 6월 말,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릴 ‘굿음악 축제’에 당신을 초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